

운동주·안중근의 '청년 정신' 기린다

市교육청 '글로벌 세계 한바퀴'...중·고교생 29명 참여 12일까지 '동북아 국제교류'...中 연길 등서 역사 체험

광주학생들이 운동주와 안중근의 '청년 정신'을 배우기 위해 동북아 역사 대장정에 나섰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동북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학생 글로벌 세계 한바퀴'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29명이 참여

했다.

중국 연길, 용정, 백두산, 목단강, 하얼빈 등 동북아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 체험, 독립운동의 의미, 중국어 수업, 중국 학생과 교류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은 용정에서 운동주 시인의 생가를 방문해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백두산을 탐방한다. 하얼빈 동북임업대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들으며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29명이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중국 연길, 용정, 백두산 등지에서 '동북아 역사현장 탐방'을 한다. 사진은 출국 전 공항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광주시교육청 제공>

며 대학문화를 체험하고, 하얼빈역과 안중근 의사기념관을 방문해 역사적 의미를 새겨본다. 또 하얼빈시 제3중학교와 하얼빈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계획이다.

이 밖에 K-POP, 태권무 등 한국문화를 알리고 중국 문화도 배운다.

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운동주 시인과 안중근 의사의 '청년 정신'을 배우고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동북아 국제교류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기업가 정신' 광주대, 2025 수시 1천345명 모집

13일까지 총 5개 전형...신입생 입학학기 등록금 면제 반려동물보건의산업학과 신설 등 학부 개편·전일제 운영

'미래인재 양성'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가 정신 대학' 광주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 총 1천345명(정원내·외 포함) 전원을

선발한다.

9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9-13일 총 5개 전형으로 실시된다.



정원내는 ▲일반학생전형(학생부100) 853명 ▲지역학생1전형(학생부100) 268명 ▲지역학생2전형(학생부70+면접30) 121명 ▲실기일반전형(학생부30+실기70) 33명 등 1천275명이며, 정원 외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전형 70명이다.

김은실 입학처장은 광주대의 2025학년도 수시 중점전략으로 학부(과) 개편, 전형료 무료, 면접 미 실시,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를 꼽았다.

먼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부(과) 개편을 진행, 반려동물보건의산업학과를 신설하고 스포츠과학부에 태권도 전공을 추가했다.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를 패션주얼리

디자인학과로, 호텔외식조리학과를 호텔조리제과제빵학과로, 경찰학과를 경찰행정학과로 각각 학과 명칭을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17개 학부(과) 전일제 학사운영을 함으로써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 학습자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수험생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형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 미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5개 학과(간호학과·사회복지학부·유아교육과·심리학과·도시부동산학과)는 지역학생2전형에서 면접을, 3개 학과는 실기전형(스포츠과학부·사진영상학과·문예창작학과)을 각각 진행한다.

신입생 전원엔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면제(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분위~8분위 해당될 경우) 혜택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에 80만원, 총원합격자에 4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외국학생 제외)을 지급한다. 학과장 또는 입학처장이 추천하는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도 마련돼 있다.

단, 신설학과인 반려동물보건의산업학과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광주대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지를 넓혀줄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과 지역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노력 중이다. 지난 5월 캠퍼스 내에 오픈한 기업가정신센터를 중심으로 1학부(과) 1기업 이상을 매칭하는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해 재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기반 현장 실습형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김다이지

"진로·취업 잡는 '잡 페스타' 가볼까"

오늘 전남대에서 75개 기업·기관 참여

전남대학교가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 '잡 페스타(JOB FESTA)'를 개최한다.

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10일 학내 5·18광장을 주무대로 기업별 홍보부스에서 '잡 페스타(JOB FESTA)'를 진행한다. 75개 핵심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과 KIA, 삼성, SK, 롯데, OCI 등 대기업, 스키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한국알프스, H&G Chemical 등 지역 우수기업 인사담당자와 현직자가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신한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전남대를 졸업한 8명의 선배가 취업 현직자로 참여해 생생한 취업 준비 노하우를 전해줄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KT에이블스쿨,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등 청년 정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디지털 타투 같은 부대행사를 통해 축제와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김다이지

동강대, 4개 계열 19개 학과 신입생 모집

내달 2일까지 수시 1차

동강대학교가 탄탄하고 준비된 교육 시스템으로 국내외에서 미래 혁신을 주도할 '멀티태스킹'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인다.

9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10월2

일까지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등 4개 계열 다양한 학제의 19개 학과에서 2025학년도 수시 1차 모집을 한다.

간호학과는 4년제, 방사선과·임상병리학과·작업치료과·유아교육과 등은 3년제다.

또 동강대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고려해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전공심화 과정을 기존 4개 학과에서 7개 학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학습+풍성한 등록금' 혜택을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중소벤처기업부 계약학과 ▲고용노동부의 고속런 일학습병행(P-Tech) 등 정부 프로젝트 7개 학과에서도 신입생을 뽑는다.

호남·제주지역 대표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선정된 동강대는 ▲자동차 설비과 ▲스마트전기과 ▲호텔조리관광과 등 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2학년 때 취업약정 협약을 맺은 중견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산업체 재직자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신입생 선발을 위해 최근 한국산업기술평화원(KI

AT) 주관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입시설명회에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계약학과는 AI기반 e-모빌리티과를 운영, 영광지역에 실습장을 구축하고 학기별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동강대는 호남지역 사립전문대학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P-tech' 사업도 알차게 진행하고 있다.

/김다이지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